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2. 교회 천국화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새 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 총회 전격통과

### 제91회 총회 시국선언문 발표 우리교회 표창 받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제91회 총회 이틀째 되는 19일(화)은 서울교회의 날이었다. 총회주제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사 51:17, 롬 13:11)라는 주제의 해설을 통해 전국 교단소속 교회의 2007년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곧이어 91회 총회의 최대 관심사인 주기도 · 사도신경 재현의 제안 설명을 주기도 · 사도신경 재번역 위원장인 이종윤 목사가 차분히 그러나 결의에 찬 목소리로 해나갔다. (제안 설명 2면 참조)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총대들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현의안을 내게 된 7가지 이유를 설명한 후 찬반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졌다. 100년 만에 바뀌는 일기기에 힘든 산맥을 넘는 느낌이 들만큼 숨 가쁜 토론이 있은 후 지난해에 이미 오랜 토의를 한 것이므로 논쟁을 중단하고 표결처리하겠다는 총회장의 제안이 있은 후 헌법위원장의 법 해석에 따라 주기도는 과반수로 사도신경은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는 것을 발표 후 기립방법으로 안전처리에 들어갔다.

투표결과는 재석 959명 중 687표의 찬성을 얻어 두 건 모두 2/3를 훨씬 상회 함으로 총회장은 즉시 통과 되었습니니다를 선언하였다. 우리교회 당회가 2002년

도 총회에 재번역을 현의한 지 만 4년 만에 역사적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종윤 목사는 즉시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찬송가 공회에 새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을 통보하고 수정해 줄 것을 총회 이름으로 청원해 달라는 제안을 함으로 총회는 이를 또한 허락했다.

한편 그날 밤 총회는 교회자립사업 모범 교회를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우리교회는 영락, 소망, 명성, 주안, 인산제일, 과천, 새문안교회와 함께 모범교회 표창패를 받았다.

또한 총회 나흘째인 21일(목)에는 조국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총회 성명서가 채택되었다. 사학법 재개정, 전시군사작전 통제권, 북한 인권문제, 도덕성문제, 이웃국가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시국성명서의 기초위원으로 활동한 이종윤 목사는 선언문을 총회에서 낭독했다. (선언문 내용은 3면 참조)

이번 총회에서 10년간 연구되어 온 21세기 찬송가 사용이 부결되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연합사업을 고려해 번의 동의가 채택되어 표결결과 사용하기로 허락 하였다.

## 2006 사명자 대회 준비 시작되다

10월8일(주일) - 11월26일(주일) 50일간

교회설립 50일 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던 15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교회는 해마다 교회설립기념일(11월 넷째주일) 전 50일 간을 사명자 대회로 열고 기도와 전도에 총력을 편다.

올해에도 5대 기도제목을 갖고 24시간 연속기도, 열렬히 기도(오전, 오후 10시), 특별새벽기도(11월20일-25일)를 통해 성도들이 제출한 기도제목과 전도

대상자 구원을 위한 도고를 한다.

성도들은 태신자를 잉태하고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1명 이상 새생명 낳기 운동에 동참하며 노방전도, 축조전도, 문서전도 등을 통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잃은 양 찾기 운동을 벌인다.

이 기간 동안 성경암송대회(디모데 전서 전장)가 있다.

## 성경통독 사경회

10월5일(목) - 7일(토) 3일간, 구약 성경을 통독해

추석연휴기간(10월5일-7일 오전) 중 구약통독사경회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진행된다.

조상승배의 죄를 범하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주기도 · 사도신경 재번역』안(案)을 다시 헌의 하면서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존경하는 총회장님, 총대여러분!

90회 총회에서 부결 처리된 주기도 · 사도신경 재번역 채택 안건을 서울북노회, 서울서노회, 서울강남노회, 대구동노회, 강원동노회, 그리고 대전노회등에서 헌의하였고 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임원회 자문위원회를 조직케하여 오늘 다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케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총회가 새로 번역된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반드시 수용해야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우리 총회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87회 총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기도 · 사도신경이 용어와 어투 그리고 원문에 있는 것이 빠진 것과 어설픈 표현된 부분을 현대어로 바르게 번역하기로 결의하고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번역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88회 총회는 번역위원들의 탁월한 식견과 신안적 헌신으로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에 따라 한기총과 교회협의회에 요청하여 두 연합기관의 회원교단이 이를 받아들여 교단마다 전문 위원들을 파송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하여 2004년 12월3일 30개교단과 기관대표 62명이 모여 전격적으로 합의된 새번역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위원 중에는 평생을 이 짧은 주기도와 사도신경 번역 연구에만 몰두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교단 파송 위원들이 교단 신학교 교수들로 전문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야 할 본 교단 총회가 90회 총회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부결 처리했다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91회 총회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 둘째,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에큐메니칼 정신을 기치로 내세운 예장 총회가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이 문제로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을 강조하는 교단의 정체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 셋째,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로부터 출발됩니다. 회개를 사회학적으로는 개혁이라 하고 정치적 용어로는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 개혁, 혁명은 결국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고치는 것이 진리요 그 빛으로 다시 서자는 것이 91회 총회의 주제입니다. 예컨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한 사도신경에서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사' 할 경우 '잉태하사'는 능동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잉태하시어 마리아에게 얘기를 낳아준 것이 되는 해괴한 뜻을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이것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로 고친 것입니다.

## 넷째, 한국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틀린 것을 알면서 바꾸면 외우기 힘들고 귀찮으니 할 수 없다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아 바르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욱이 작년도에 이미 기독교 성결교단과 예장개혁신당이 새 번역을 수용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단이 이를 받아야 합니다.

## 다섯째, 하나님 나라와 몸 되신 교회가 건강하게 확장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학과 졸업한 엘리트 CEO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서 막혔습니다. 그의 질문요지는 예수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심판 때에 우리 죄 값을 고리(高利)로 계산치 않고 싼 이자 즉, 저리(低利)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은 성도들이 주술처럼 암송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될 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기도에서 원문에 의하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경우 우리말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인칭대명사를 모두 본명사인 아버지라 바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너무 많이 나와 번거로운 느낌이 있다 하나 주님이 반복용법을 통해 강조하신 것을 생략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입니다.

주기도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자주 사용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육성키 위해서 이 번역은 현재 사용되는 언어표현으로는 가장 잘 된 번역이라 할 수 있다고 한신대 신약학 교수인 김.C.R 박사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여섯째, 개혁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Reformed Church)라 하지만 실은 항상 개혁되어가는 교회(Always Reforming Church)입니다. 90회 총회는 이미 '통과되었습니다.'라고 총회장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개정이라는 이유로 2/3동의를 요구하므로 투표에 붙어 부결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재번역위원회를 총회가 구성해 주었지 교리개정위원회를 만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새로 번역된 개혁개정판 성경을 강단용으로 채택할 때에도 과반수로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는 교리 속에 들어 있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도신경도 번역한 것임으로 91회 총회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주기도와 함께 과반수로 받고 우리 헌법책에 수록된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된 것으로 대체할 경우엔 헌법의 교리로 채택하는 일이 뭍으로 2/3동의를 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항상 개혁되어가는 개혁주의 정신이 살아야 합니다.

## 일곱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동일한 안건을 놓고 길게 토론을 했습니다. 번역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번역의 내용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을 감안하시고 현명하신 총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보다 대의(大義)를 따라 새로 번역된 이 안을 만장일치로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새가족 환영회

30일(토) 오후 5시 8층 만나홀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3/4분기 7월부터 9월까지 등록된 분들의 새가족 환영회가 30일(토) 오후 5시 8층 만나홀에서 열린다.

#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교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민족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 왔다. 지난 날 교회는 천년의 어두움을 깨는 빛이었다. 이웃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긴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군사정부의 암울한 억압 속에서도 교회는 진리와 자유와 인권의 등대였다. 특히 민족분단의 아픔 속에서 교회는 민족을 끌어안고 화해와 통일의 날을 위하여 기도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혼란과 갈등, 분열과 다름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침몰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91회 총회는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는 주제아래 모여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했다. 이제 250만의 성도를 대표하는 총대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 혼란된 현 시국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한국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건학의 정신에 따라 이 땅의 근대화와 더불어 참다운 인간상을 세우고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그러기에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기독교 사학은 그 건학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그 정신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극히 일부분의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아래 사학법을 개악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은 말살되고 나아가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더욱이 사학법의 개악은 현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 사학법이 가져오는 결과를 인식하고 속히 사학법

을 재개정해야 한다.

## 둘째: 전시군사작전통제권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자주국가로서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은 보다 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의 자세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한·미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현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도록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셋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우리교회는 나누어진 북한의 형제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긍휼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북한형제들의 삶이 보다 더 개선되기를 언제나 소망해 왔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형제들이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음의 소식에 접하면서 저들 형제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자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교회는 형제의 사랑으로 북한 땅의 인권이 보다 개선되고 나아가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넷째: 도덕성 회복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지금 심각한 가치관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온 가치관, 정직, 근면, 성실, 책임감, 협동심, 겸소, 예절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대신 갈등, 이기심, 분열, 사행심, 폭력, 부정부패, 향락, 성폭력 등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의 장은 이미 붕괴되었다. 이것은 우리사회를 인간의 사회가 아니라 패역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능률과 편의보다는 도덕성회복과 절대적 가치의 회복에 정책의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 다섯째: 이웃국가들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일본과 중국은 지금 반역사적인 팽창주의와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일본은 지난 날 우리에게 행한 죄악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일본의 1급 전범들을 안치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엄연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영토 확장에 대한 야심을 어김없이 드러내며 지난날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추할 경계를 정하여 주셨음을(행17:26) 인식해서 이들의 역사왜곡과 팽창주의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적절하고 강력한 수단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대표하는 1,500 총대 모두는 위 사실을 공감하며 정부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간절한 애정을 가지고 입장을 밝힌다. 나아가 이 일의 근본 원인은 교회가 바로서지 못함이며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통감하며 회개한다. 1907년 대부흥으로 민족의 앞길에 희망이 비쳐졌음을 기억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주후 2006년 9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91회 총회 총대 일동

## 목사님 궁금해요

### “도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해가 어려운 것이나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코너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한 것 중에 기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고와 감사를 하되”(딤후 2:1).

본문에 기록된 기도예에 관한 네 가지 명사 곧, '간구', '기도', '고', '감사'에 대해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를 통해 그 뜻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절히 요구하다'라는 뜻의 '간구'를 헬라어로는 '데에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로 향한 '열렬한 또는 필사적인 요구'(a passionate or desperate request)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기도예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슈케'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도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투크시스'는 신약성경에서 딤후 4:5와 본 절에서만 언급되는 단어로서, 원래는 '접근', '인터뷰', '사회적 교제'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성경

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는 요구'(intercession - a prayer or request to God on behalf of someone else)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에 '도고'는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보기도'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본디 '중보'란 예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이런 까닭에 우리 총회에서는 '중보기도' 대신 '도고'를 사용하도록 결의한 적이 있었음을 첨언하면서, 이제 우리교회에서도 중보기도라는 말 대신 '도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부)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 스케치

#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 가을엔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시인의 글귀처럼 높아지는 하늘에 서울교회는 이웃과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해 바자의 문을 사랑으로 활짝 열었다.

사랑으로 무르익은 바자는 온 동네가 떠들썩하여 가을의 맛과 멋이 물씬 풍기는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교구마다 목사님들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장갑을 끼고 바베 서두르는 모습... 목사님의 해물부침은 너무 크게 부쳐 밀지는 장사는 아니었는지?

그래도 주님이 받으신 바 섬김의 모습이었으리라!

바자 음식 중 빼놓을 수 없는 맛의 진수 녹두 빈대떡, 한티공원 물보라 소리를 들으며 예바다부의 호떡집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호떡집에 불난 듯 하였다. 1500포기 배추김치의 기적... 해마다 국민운동화로 자리 매김한 S 운동화

안동 밤, 여주 고구마의 맛은 일품!  
집나간 머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맛! 가을 전어!!!

싱그러운 생과일 주스는 볼티나게 팔리고 어느 교구에서는 시어머니가 뒤에서 반죽하고 머느리는 앞에서 부치고 팔고, 잔치국수, 떡볶이, 순대는 늘어선 긴 줄 때문에 비라만 보고 시장기가 더 했다. 강남 패션1번지를 방불케 하는 구두, 옷, 머플러, 화장품, 액세서리 등등... 여기만 오면 1000원만 들여도 멋쟁이!

바자의 꽃 LG전자제품이 큰 몫을 하고 교구 코너마다 모두 십자가의 정병들. 이웃과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바자는 교회 모두의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었고 너도나도 모두 천국 잔치의 협력자요 모두가 사랑의 천사들이었다.

이 모든 광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것 같다.

“ 아름다운 축제의 장...

너도나도 천국 잔치의 협력자...

우리는 사랑의 천사들...

”



###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25일(월) 한국기독교교회학원 학술발표회 진행을 맡는다.
- ☞ 오정수 장로(당회서기)는 9회 총회 부회계로 선출된다.
- ☞ 주간식당 봉사: 도르가전도회(9월24일)루디아 전도회(9월29일)
- ☞ 금주의 식사 제공: 오현상 성도 김병욱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 새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 총회 통과를 감사하면서 당회원들이 떡잔치를 베푼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3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각종 열린프로그램 좋은 열매 맺도록
2. Pilgrims' Vision Trip(성지순례단)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우리 총회가 사용케 된 것을 감사
4. 개정된 사학법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

### ☞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